

대학신입생 학업동기 향상을 위한 동기유발학기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K 대학을 중심으로

Effects of the "Motivation Semester" Program among University Freshmen : Focused on K-University

한우석*, 김진경*, 이혜경**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Woosok Han(wshan@konyang.ac.kr)*, Jinkyung Kim(jkim@konyang.ac.kr)*,
Hyekyung Lee(hklee@konyang.ac.kr)**

요약

본 연구는 K 대학에서 실시한 동기유발학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K 대학의 동기유발프로그램은 전국 대학 최초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동기 증진을 위해 실시되었다. 4주간 리더십 캠프, 전공몰입교육, 진로탐색 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가한 K 대학 병원관리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등 4개 학과의 신입생 196명을 대상으로 단일 사전-사후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를 실시하였다. 학업동기의 사전, 사후 평균차이에 대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전과 후의 학업동기 평균은 t값 -2.523으로 유의수준(p<.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동기유발학기 프로그램이 대학신입생의 학업동기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신입생의 학업동기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이 요구된다.

■ 중심어 : | 대학신입생 학업동기 | 동기유발프로그램 | 대학생활적응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motivation semester" program, which was implemented for the freshmen at the K-university. The program, which was carried out for the first time among universities in Korea, was designed to help university freshmen with increasing academic motivation and adjusting university life. For four weeks, various programs such as self-leadership camp, major commitment programs, and career exploration were offered to all freshmen at the K-university. The study design was a pre-post comparison of academic motivation scores among four undergraduate departments freshmen, majoring social welfare, hospital management, radiological science, and optometr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6 students. The T-test result, which wa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program scor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t=-2.523, P<.05$).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motivation semester" program significantly enhanced the academic motivation of freshmen. It was encouraged to develop programs for university freshmen to improve academic motivation in their major areas.

■ keyword : | University Freshmen | Motivation Semester |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

I. 서론

대학생활은 진리탐구와 인격성숙을 도모하고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독립된 존재로 성장하는 시기이다.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신입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타율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 생활방식을 수행해 오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확립 등 다양한 발달과업의 도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생활환경의 변화 외에도 진로선택과 장애에 대한 불안 등으로 대학신입생들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

특히 대학사회라는 구조적 특성 속에서 성인과 유사한 나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진로 선택과 학업적응의 과업 수행을 위해 대학신입생에 요구되는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 학업동기이다. 학업동기는 학습자로 하여 학업 행위를 유발하고 학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자발적인 힘이다[2]. 자발적 삶의 발달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심리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고, 전문적 역량과 경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능동적 과정으로 대학생활의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최근 학업동기와 관련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들이 확산되어 왔다[3-5]. 특히 학업성취가 교육의 주된 목표가 되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업동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학업동기와 관련한 실천적 분석은 아직까지 부족한 형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업동기와 관련된 논의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고[6][7], 개별 학생의 특성과 학업동기간의 관련성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8][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학신입생의 학업동기 증진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실행과 이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통해 대학신입생들의 학업증진에 필요한 실천적, 제도적 제언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K 대학에서 실시된 바 있는 동기유발학기 프로그램은 2011년 시

범사업을 거쳐 2012년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대학단위의 동기강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검증은 이후 다양한 동기강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 많은 대학으로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검토

1. 대학신입생의 학업동기

동기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요인이면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개인의 행동 목표를 지향하게 한다[2]. 따라서 학업동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을 유도하는 역할 뿐 아니라 학습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일반적으로 학업동기는 학습동기와 매우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는 구체적인 학습행동과 관련된 반면 학업동기(academic motivation)는 학습과 관련된 개인 내적, 외적 요인을 포괄하는 일반적 학업상황에서의 동기를 지칭한다[10]. 따라서 학업동기는 학습동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업동기는 대학생의 학업성취 및 전반적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1].

학업동기를 김아영(2002)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1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한 형태로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 개인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으며, 어려운 일이 닦쳐도 끈기있게 과제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12].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과제에 도전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실패내성은 개인이 자신의 학업상황에서의 실패 경험에 대해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학업적 실패내성이 낮은 경우 실패경험이나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일을 잘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감과 두려

움을 느끼게 되어 문제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11]. 따라서 실패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경험을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지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학입시를 위해 끊임없이 시험과 성적에 대한 압박적 성취를 강요당해왔던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실패대상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학업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학업동기에 대한 연구는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13][14], 개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는 진로성숙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결국 학업동기는 학교생활의 적응 뿐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자신감과 태도, 선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학업동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15][16], 드물게 정미영과 류진혜(1999)는 대학신입생의 인문사회학적 배경이 학업태도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민주적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 학업동기가 높고,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진로계획이 있는 경우, 사회적 지지 등이 높을수록 학업동기가 높게 나타났다[8]. 특히 대학생의 경우 개별적 특성보다 학습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교수와의 관계가 대학생들의 학업동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이와 박용환의 연구에서(2008) 대학생들의 교수신뢰수준이 높을수록 학업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수가 전문영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이를 발휘하며, 정서적으로 학생들과 친밀하게 연대감을 느끼는 경우 대학생들의 학습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는 유지원 등의 연구(2011)에서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가 학습자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18].

이처럼 학업동기는 대학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환경속에서 대학신입생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긴장 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요한 동력으로 고려되어 왔다. 이에 학업동기증진 프

그램은 이러한 전략의 활용을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업동기증진 프로그램은 학업동기 증진을 통한 학습적 능력 향상과 학업성취에 관심을 두고 있다[6][7][19]. 학업문제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동기를 향상시킴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또한 이상열(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집단프로그램이 진로탐색 태도와 학업성취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0]. 김은영(2006) 역시 동기조절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대학생들의 자발적 학업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21].

한편 학업동기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과 개발을 시도한 연구도 있다. 문영주(2009)는 대학 2년생을 대상으로 전공과목에 대한 문제중심학습 교수법을 실시하여 학업동기의 증진효과를 밝혔다[3]. 김은영과 유숙영(2008) 역시 교수학습방법의 하나로 사회봉사활동을 교과과정의 하나로 개발한 봉사학습을 통해 대학생의 학업동기와 지역사회참여의식이 향상되었음을 소개하였다[22].

이상에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업동기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학생들의 학업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과 학업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구성요소가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신입생의 학업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개입방안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효과의 검증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있는 K 대학의 동기유발학기 프로그램은 전공에 대한 흥미유발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적응 및 진로탐색 등 학업의 주요 요소 외의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 차원의 동기강화 개입의 효과성의 검증은 이후 대학생들의 동기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에 경험적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 대학 병원관리학과 외 4개 학과 신입생 19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K 대학에서 실시된 동기유발학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일 집단 사전-사후 실험(One group pre-post test design)을 적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프로그램 시작일인 2012년 2월27일과 직후인 3월 27일에 각각 실시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인가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는 일반문항과 학업동기 및 자존감, 스트레스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1 학업동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동기 척도는 김아영(2002)이 개발한 척도를 재구성한 것으로 크게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1].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수준 선호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수는 자신감 5문항, 조절효능감 5문항, 과제수준 선호 9문항으로 총 19문항이다.

학업적 실패내성은 감정, 행동,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내성 7문항, 행동내성 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3문항으로 총 12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값은 Cronbach's $\alpha=.853$ 으로 나타났다.

2.2 자아존중감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아존중감을 단일차원으로 개념화한 것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문항 5문항과 부정적 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값은 Cronbach's $\alpha=.824$ 로 나타났다.

2.3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의 경우 Cohen 등(1983)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PS)를 사용하였는데[23],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의 생활이 예측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으며, 부담이 되었다고 지각하는 정도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협하거나 또 다른 대처를 요구하는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인지상태를 사정하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674였다.

3.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

동기유발학기 프로그램은 K 대학에서 전국 대학 최초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과 적성 탐색을 위해 입학과 동시에 4주간 실시한 몰입식 프로그램이다.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K 대학 38개 학과 전체에 확대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과 토론, 강의식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동기와 성공취업동기를 유발하며, 대학생들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신입생들의 학업동기 증진을 통해 지성과 인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의 강화, 전공교과목에 대한 체계적 이해, 진로탐색의 기회 등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 단위는 학과이며,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 핵심 프로그램을 대학 본부에서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본부 주도 프로그램은 주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명사특강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진로탐색의 동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리더십 캠프, 미래비전특강,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과주도 프로그램은 학과별 특성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 프로그램으로 전공몰입교육과 미래직장방문, 멘토를 찾아서, 사회봉사활동, 졸업생 특강 등으로 구성되었다[표 1].

이들 프로그램은 학과별 책임교수의 주도하에 세부 프로그램별로 학과의 모든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학과 선배 및 졸업생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신입생들의 학과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수 및 선배들

의 적극적 참여는 대학신입생들이 입학 후 느끼는 소외감과 적응 불안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주 내용을 교육적 접근과 체험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신입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표 1. 동기유발프로그램 소개(예-사회복지학과)

주차	목표	프로그램명(시간)
1주 2/27 ~ 3/2	대학 생활의 이해	오리엔테이션(1) open mind(3)/PBL project(1) 전공몰입교육(2)/미래비전특강(2) 멘토를 찾아서(2) 노인복지관 사회봉사(8)
2주 3/5 ~ 3/9	학과 전공의 이해	도서관 탐방(3)/전공몰입교육(8) 멘토를 찾아서(10)/학과특강(3) PBL project(5)/미래비전특강(2) 독서토론(2)/평생 family 면담
3주 3/12 ~ 3/16	진로 적성 탐색	리더십 캠프(24)/PBL project(2) 독서토론(2)/전공몰입교육(2) 미래직장방문(8)
4주 3/19 ~ 3/23	학습 목표 수립	PBL project(2)/전공몰입교육(3) 전문가 특강(4)/미래비전특강(4) 인생 로드맵(2)/수료식 및 평가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들은 SPSS/PC WI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측정을 위해서는 사전사후 검사결과에 대한 차이를 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87명(44.4%), 여성 109명(55.6%)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관리학과는 54명(27.6%), 사회복지학과는 57명(29.1%), 방사선학과는 43명(21.9%), 안경공학과 학생은 42명(21.4%)이었다. 가족의 경제상태는 상 8명(4.1%), 중 168명(85.7%), 하

20명(10.2%)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족의 경제상태가 중간 정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학력은 고졸이 98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이 91명(46.4%)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부모가 고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89.3%가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학생과 종교가 없는 학생이 똑같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96)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	87(44.4)
	여	109(55.6)
전공	병원관리학과	54(27.6)
	사회복지학과	57(29.1)
	방사선학과	43(21.9)
	안경공학과	42(21.4)
경제상태	상	8(4.1)
	중	168(85.7)
	하	20(10.2)
부모학력	초졸이하	2(1.0)
	중졸	5(2.6)
	고졸	98(50.0)
	대졸이상	91(46.4)
부모결혼상태	결혼 유지	175(89.3)
	이혼 및 별거	16(8.2)
	사별	5(2.6)
종교유무	종교 있음	98(50.0)
	종교 없음	98(50.0)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학업동기,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등 본 연구의 주요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학업동기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r=.509, p<.01$), 학업동기와 스트레스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53, p<.01$).

표 3.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a	b	c	d	e
자존감(a)	1				
스트레스(b)	-.558**	1			
학업동기(c)	.509**	-.453**	1		
학업적 자기효능감(d)	.419**	-.378**	.888**	1	
실때내성(e)	.407**	-.398**	.812**	.490**	1

*P<.05, **P<.01, ***P<.001

학업동기의 하위영역인 학업적 자기효능감($r=.419$, $p<.01$)과 실패내성($r=.407$, $p<.01$)역시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스트레스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78$, $p<.01$; $r=-.398$, $p<.01$).

3. 변수별 차이검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동기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일반특성 중 성별과 가족소득, 전공 등은 학업동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상태($F=5.203$, $p<.01$) 및 전공만족도($F=4.661$, $p<.05$)는 학업동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대인관계만족도 역시 학업동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16.776$, $p<.001$).

즉 건강상태가 좋고, 전공과 대인관계에 만족할수록 학업동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주요변수에 따른 학업동기의 차이

구분		평균(SD)	t(F(P) Duncan 검정
성별	남	93.50(12.82)	.468
	여	92.71(10.79)	
전공	병원관리학과	91.40(11.30)	2.508
	사회복지학과	91.50(11.27)	
	방사선학과	93.16(11.05)	
	안경공학과	97.21(12.82)	
경제 상태	상	98.00(8.21)	1.318
	중	93.17(11.15)	
	하	90.20(16.46)	
건강 상태	건강함(a)	95.00(12.03)	5.203** a,b,c
	보통(b)	91.80(10.22)	
	허약함(c)	84.27(14.71)	
전공 만족도	불만족(a)	90.86(9.02)	4.661* a,b(c)
	보통(b)	92.42(10.71)	
	만족(c)	95.70(12.50)	
대인 관계 만족도	불만족(a)	88.47(5.73)	16.776*** a,b(c)
	보통(b)	90.00(9.55)	
	만족(c)	96.87(12.48)	

* $P<.05$, ** $P<.01$, *** $P<.001$

4. 사전-사후검사 차이검증

동기유발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신입생에 실시한 학업동기 및 자아존중감, 스트레스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차이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사전사후 검사 차이검증 결과

구분	사전 평균 (SD)	사후 평균 (SD)	t	p
학업동기	91.76 (11.32)	95.71 (11.89)	-2.523	.012*
학업적효능감	56.54 (8.10)	59.06 (7.75)	-2.359	.019*
자신감	15.17 (3.45)	16.40 (3.51)	-2.623	.009**
	16.16 (2.49)	16.52 (2.37)	-1.097	.274
	25.20 (5.44)	26.13 (5.13)	-1.304	.194
실패내성	35.22 (5.22)	36.65 (5.73)	-1.928	.055
감정내성	19.87 (4.12)	20.94 (4.77)	-1.781	.076
	5.71 (1.37)	5.84 (1.42)	-0.701	.484
	9.63 (1.92)	9.86 (1.75)	-0.896	.371
자아존중감	35.25 (5.48)	35.78 (5.67)	-0.714	.476
스트레스	27.12 (3.83)	27.32 (3.92)	-0.378	.706

* $p<.05$, ** $P<.01$, *** $P<.001$

분석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학업동기($t=-2.523$, $p<.05$)이며,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동기의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역시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의 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359$, $p<.05$).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소 중 자신감의 변화가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다($t=-2.623$, $p<.01$).

변수 별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따른 평균을 살펴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6.54에서 59.06으로 향상되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감은 15.17에서 16.40으로 향상되어 조절효능감과 과제수준 영역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실패내성의 경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을 비교할 때 35.22에서 36.65로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실패내성의 하위요인인 감정내성과 행동내성, 과제난이도 선호 역시 사후검사 결과

가 사전검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경우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동기 유발프로그램의 효과는 다른 영역보다 학업동기 영역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K 대학에서 신입생의 학업동기 유발과 대학생활 조기적응을 지도하기 위해 실시한 동기유발하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학업동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신입생의 주관적 건강상태($F=5.203$, $p<.01$)와 전공만족도($F=4.661$, $p<.05$), 대인관계만족도($F=16.776$, $p<.001$)는 학업동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고 전공과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8][17][18]. 특히 정은이와 박용한(2008)은 대학생의 대인관계 영역 중 교수와의 친밀감이 학생들의 과제가치와 효능감, 학습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17]. 따라서 대인관계영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영역별 특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 대학의 동기유발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신입생들의 학업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t=-2.523$, $p<.05$). 특히 학업동기의 하위영역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 영역의 변화가 유의미한 정도로 크게 나타났으며($t=-2.359$, $p<.05$), 실패내성의 변화는 실제적인 향상은 있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패내성의 경우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능력과 적응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본 조사대상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총점 60점 중 평균 35~3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대학신입생들이 치열한 입시전쟁을 치루는 동안 실패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이와 관련한 부정적 감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고 [24],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학업성취나 학업동기와 상관없이 한국의 청소년들이 주관적 행복감이 낮고 학업스트레스에 민감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25]. 본 연구에서도 학업동기의 향상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프로그램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취업탐색, 진로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후의 동기유발증진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리더십 개발과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진로탐색 등의 성취지향적, 교육적 활동 뿐 아니라 자아탐색과 수용,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전략과 관련한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 그룹 토의 및 PBL(문제중심학습법), Action Learning 등 팀활동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입생들의 자율적 학업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신입생의 학업동기 증진과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이 대학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현장에서 학생들은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게 되나, 길으로 드러난 다양한 과업에 적절히 준비하지 못하고, 과중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입시 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학습습관이 대학생이 되어도 갑작스럽게 변화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업동기의 강화와 구체적 훈련을 위한 과도기적 준비단계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대학강의식 수업에 적응하기 위한 전단계로 적응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대학신입생의 입학시점부터 제도적이고 체계적 지원프로그램의 운영이 지속성을 확보해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인 적응능력의 발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후 이러한 동기유발프로그램이 대학별 특성에 맞추어 더욱 다양해지고, 더 많은 대학의 참여를 통해 확산되어 간다면 대학신입생의 학교적응은 단순하고 소극적 의미에서의 적응을 넘어 미래의 전문인력으로서

의 잠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의미의 적용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더해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측정시점을 보다 다양화하고, 정교한 비교통제집단의 설정을 통한 실험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4주간의 프로그램 특성상 다양한 활동들의 영역별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요소를 탐색하는 데는 제한적이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내용적 요소를 구분하여 각 영역별 효과를 분석하고, 비교집단의 설정을 통해 보다 타당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양적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질적자료분석을 함께 시도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과정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D. Rachael and Rents, "Freshme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Coping," *J. of Clinic Psychology*, Vol.62, No.10, pp.1231-1244, 2006.
- [2] P. R. Pintrich and D. H. Schunk,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2002.
- [3] 문영주, "대학생의 학업동기 향상에 있어 문제 중심학습 교수법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1호, pp.47-70, 2009.
- [4] 노효련, "요양보호사 교육 참가자의 학습동기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pp.428-437, 2011.
- [5] 안도희, 박귀화, 백광진, 정상인, "의과대학생들의 학업동기,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성취에 대한 지각 간의 관계 등의 연구", *한국의학교육*, 제19권, 제1호, pp.59-71, 2007.
- [6] 김동원, *중학생을 위한 학업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학업스트레스와 학업동기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7] 류미경, *학습기술향상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학습동기, 학습효능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8] 정미영, 류진혜, "대학생의 배경이 학업태도 및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연구*, 제17권, 제1호, pp.69-86, 1999.
- [9] 임은미, 이성진, "중·고등학생의 학업동기 구조", *아시아교육연구*, 제2권, 제1호, pp.89-111, 2001.
- [10] 김아영,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제14호, 제1권, pp.111-134, 2008.
- [11] 김아영,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제15권, 제1호, pp.157-184, 2002.
- [12]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pp.191-215, 1977.
- [13] 김명희, 하정희, "학습동기와 학습기술이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심으로", *아동교육*, 제17권, 제2호, pp.33-48, 2009.
- [14] 심미영, 오효숙,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328-337, 2012.
- [15] 황매향, 임은미,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3호, pp.177-191, 2004.
- [16] 이윤옥,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학업동기와의 관계", *교육논총*, 제27권, 제2호, pp.87-99, 2008.
- [17] 정은이, 박용한, "대학생들의 교수신뢰와 학습동기 및 대학 생활적응과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제9권, 제1호, pp.73-93, 2008.
- [18] 유지원, 강명희, "대학생의 학습참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욕구 요인, 동기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연구*, 제49권, 제4호,

pp.55-85, 2011.

- [19] 정선주, *학업증진 집단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업자아개념, 학업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0] 이상열, *진로집단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와 학업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1] 김은영, *대학생 동기조절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22] 김은영, 유숙영, “봉사학습이 대학생의 지역사회참여의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제46호, pp.233-254, 2008.
- [23] S. Cohen, T. Kamarck, and R. Mermelstein,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Vol.24, No.4, pp.385-396, 1983.
- [24] 고흥월, “대학생 학습동기 유형에 따른 학업소진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pp.125-147, 2012.
- [25]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엄유식,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제44권, 제2호, pp.121-154, 2010.

김진경(Jinkyung Kim)

정회원



- 2007년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Ph.D. in Health Policy)
- 200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보건정책, 요양병원 질관리

이혜경(Hye-Kyung Lee)

정회원



- 200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지역사회정신건강

저자소개

한우석(Woo Sok Han)

정회원



- 1990년 : Lynchburg college 수학과 졸업
- 1993년 : University of minnesota 보험통계학과 졸업
- 2008년 : 건양대학교 경영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조교수

교 병원관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병원경영,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